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이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정호¹ · 박미경² · 조은아³조선간호대학교¹, 남부대학교 간호학과², 호남대학교 간호학과³

Effects of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and Sexual Double Standard on Contraceptive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Kim, Junghyo¹ · Park, Mikyung² · Cho, Euna³¹Chosun Nursing College, Gwangju²Departm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Gwangju³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o determine the effect of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and sexual double standard on contraceptive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With a survey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251 university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in G city from September 2016 to October 2016.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sexual double standard,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scores of participants were 58.82 ± 8.78 , 21.73 ± 6.00 , and 44.20 ± 5.91 , respectively.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and sexual double standard were related to contraceptive self-efficacy. Sexual double standard,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female, contraceptive education, and contraceptive experience explained 33% of contraceptive self-efficacy of participants. **Conclusion:** Sexual double standard and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were influencing factors of contraceptive self-efficacy. To improve contraceptive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a program is needed to eliminate sexual double standard and improve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ey Words: Communication, Sex, Contraception, Self-efficacy,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에 대한 허용과 개방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이성교제의 증가, 성 가치관의 변화로 개인의 성적 표현이나 성 행동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활발해졌다[1]. 특히 대학문화를 접하게 된

대학생은 자율성이 증가한데 반해 성 정체성의 완전한 확립은 이루어지지 않아 갑자기 얻은 자유를 통제하지 못하고 성관계 경험이 증가하면서[2,3] 가치관의 혼란과 무책임한 성 행동을 야기한다. 이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성 문화의 실태로 우리나라 대학생은 41.6%가 성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2], 첫 성 경험 시기는 평균 19.3세라고 하였다[4]. 반면, 첫 성교 시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36.9%[5]에 불과하며, 성 관계시 항상 피임을 하는

주요어: 의사소통, 성, 피임, 자기효능감, 학생

Corresponding author: Cho, Euna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417, Eodeung-daero, Gwangsan-gu, Gwangju 62399, Korea.

Tel: +82-62-940-5549, Fax: +82-62-940-5196, E-mail: jouoa@honam.ac.kr

- 이 논문은 2016년도 조선간호대학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hosun Nursing College. 2016.

Received: Oct 10, 2017 / Revised: Dec 27, 2017 / Accepted: Mar 3,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경우도 44.6%로 낮았다[2]. 이러한 성 행동 결과, 여대생은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신한 경우 임신중절을 선택한 경우가 94.4%라고 하였으며 그 중 17.5%가 합병증을 경험한다고 하였다[4]. 따라서 무방비한 성 행위는 남녀 모두에게 심리적 정신적 문제 발생뿐 아니라 여성에게는 건강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며, 미혼 임신될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함께 나타나므로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임은 성 건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최근 변화된 성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회분위기와 대학생이 되어 과잉 표출되는 성문화와 관련해 청소년의 성 태도와 성 행동은 부모보다는 친구들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5]. 특히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성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성 지식이 낮아도 성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 긍정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러므로 성 행동 관련하여 부모보다는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으로 관심을 선회해야 한다.

성 이중기준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허용성에 대하여 다르게 보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7]. 우리나라의 성 이중기준은 가부장제도의 영향을 받아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8] 성적 행동 기준과 관련하여 남성에게는 보다 허용적이며, 여성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9]. 즉 성 이중기준은 성적인 행동이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지배적이며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자로서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은 수동적 존재로 고정시키고 있다[8].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강조되고 있어 성 이중기준이 희미해지고 있다하여도 여전히 성 이중기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성과 관련해서도 왜곡된 인식과 행동을 보이고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8] 성 이중기준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성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5,10],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 학교 피임교육 경험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1]. 또한 자신이 피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성교 상황에서 피임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피임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12-14].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임 자기효능감의 속성을 피임을 사용할 것을 성파트너에게 주장하는 피임 사용 주도성, 성적 자기주장, 원하지 않거나 피임이 되지 않은 경우 성관계 거부, 자율적 성행동 4가지로 설명하였다[10]. 이러한 속성을 볼 때 피임 자기효능감 증진이 요구되므로 다각도로 변화 가능한 영향요인을 찾아야 한다.

기존 피임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피임지식, 성행동

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11,15,16]는 있으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 이중기준,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이 피임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이 있는지 보고한 연구는 미미하여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의 개방화 과정에서도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차별적 성 이중기준이 어떻게 유지 또는 변형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17] 성 이중기준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과 성 이중기준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비슷한 나이로서 서로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성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며[6],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간 성 의사소통 도구[18]를 번안하여 수정한 것[19]을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에 맞게 재수정한 도구[6]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2) 성 이중기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허용성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의미하며[7], 본 연구에서는 Sexual Double standard scale [20]을 번안하여 국내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도구[21]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3) 피임 자기효능감

자신이 피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하며

[13], 본 연구에서는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도구[5]를 수정·보완한 도구[22]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증기준 및 피임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참여에 서면 동意的한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적절한 표본수는 G*Power 3.1.4[23]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22개로 정하고 분석한 결과, 최소 230명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수는 탈락률 20%를 감안하고 270명에게 설문하게 한 후 개별봉투를 활용하여 회수하였으나 설문지 미완성으로 분석이 부적합한 19개를 제외하여 분석대상자는 최종 251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측정도구는 부모 자녀간 성 의사소통 도구[18]를 변안하여 수정한 것[19]을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에 맞게 재수정된 도구[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편안한 영역, 정보적 영역, 가치적 영역 등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폐쇄적인 성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였고, 수정도구[6]의 신뢰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성 이증기준

성 이증기준 측정도구는 Sexual double standard scale [20]

을 변안하여 국내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것[21]을 사용하였다. 성 이증기준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허용성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으로[20] 성 이증기준 도구는 일반적인 남녀의 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사회 문화적인 수준에서의 성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21].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이며 1개의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 이증기준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성 평등의식이 없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보다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성 평등의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수정도구[21]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3) 피임 자기효능감

피임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도구[5]를 수정·보완한 도구[22]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이었으며 수정도구[22]의 신뢰도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4. 자료수집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H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223-201606-HR-011)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하기 전 G시 소재 3개 대학교를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게시판에 모집공고를 붙이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설문동의서에 서면 동意的한 자에게 설문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조사방법, 이익과 보상, 자료의 익명성 보장 및 비밀유지, 중도 철회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설문조사를 동意的한 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Statistics 2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증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는 기술통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

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로 분석하였다.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피임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학생이 53.4%(134명), 남학생 46.6%(117명) 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20.83±1.95세였다. 전공은 보건계열 29.9%(75명), 예체능계열 25.9%(65명), 인문사회계열 25.1%(63명), 공과계열 19.1%(48명) 순이었으며, 1학년 39.4%(60명), 2학년 38.2%(96명), 3학년 22.3%(56명), 4학년 15.5%(39명)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 상태는 대상자의 6.0%(15명)가 '상', 84.0%(211명)가 '중', 10.0%(25명)가 '하'라고 응답하였다.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에 대해 대상자의 59.4%(149명)가 '보통이다', 25.1%(63명)가 '개방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 동안 음주 경험자는 93.2%(234명)로 많았고, 음란물 접촉 경험자는 72.1%(181명)이었다. 피임교육 경험자는 77.7%(195명)이었으며, 그중 76.4%(149명)는 학교에서, 5.6%(11명)는 친구에게서 피임정보를 접했다고 하였다. 대상자 중 이성 친구가 있는 자는 38.3%(96명)이었고, 성관계 경험자는 39.0%(98명)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경험 시기는 만 18~19세가 42.0%(34명)로 가장 많았으며, 20세 이상 35.8%(29명), 13~17세 22.2%(18명) 순이었다. 피임 유경험자는 35.9%(90명)였으며, 피임 의도가 있는 자는 96.8%(243명)로 나타났다. 피임방법으로 대상자의 68.1%(171명)은 콘돔을 희망하였고, 6.8%(17명)은 경구피임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2가지 이상 피임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자도 12.4%(31명)였다. 성격은 외향적인 자 35.1%(88명), 내향적인 자 34.7%(87명)이었고, 성문제 관련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 수가 '5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자는 43.3%(103명)이었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자는 2.5%(6명)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은 평균 58.82±8.78점(최고점 90점)이었고, 성 이중기준은 평균 21.73±6.00점(최고점 50점)이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51)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or M±SD |
|--|-----------------------------|---------------|
| Gender | Male | 117 (46.6) |
| | Female | 134 (53.4) |
| Age (year) | | 20.83±1.95 |
| | 18~19 | 77 (30.7) |
| | 20~21 | 91 (36.2) |
| | ≥22 | 83 (33.1) |
| Department | Health & medical | 75 (29.9) |
| | Science & technology | 48 (19.1) |
| | Humanities & social studies | 63 (25.1) |
| | Arts & physical education | 65 (25.9) |
| Grade | Freshman | 60 (39.4) |
| | Sophomore | 96 (38.2) |
| | Junior | 56 (22.3) |
| | Senior | 39 (15.5) |
| Parents' opinion about dating | Conservative | 39 (15.5) |
| | Moderate | 149 (59.4) |
| | Open | 63 (25.1) |
| Economic status | High | 15 (6.0) |
| | Middle | 211 (84.0) |
| | Low | 25 (10.0) |
| Drinking within one year | Yes | 234 (93.2) |
| | No | 17 (6.8) |
| Experience of watching pornography | Yes | 181 (72.1) |
| | No | 70 (27.9) |
| Contraceptive education | Yes | 195 (77.7) |
| | No | 56 (22.3) |
| Information sources of contraceptive education (n=195) | School | 149 (76.4) |
| | Friends | 11 (5.6) |
| | Others | 35 (17.9) |
| Friend of opposite sex | Yes | 96 (38.3) |
| | No | 111 (44.2) |
| | In the past, not present | 44 (17.5) |
|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 Yes | 98 (39.0) |
| | No | 153 (61.0) |
| The first time of sexual intercourse (year) (n=81) | 13~17 | 18 (22.2) |
| | 18~19 | 34 (42.0) |
| | ≥20 | 29 (35.8) |
| Contraceptive experience | Yes | 90 (35.9) |
| | No | 161 (64.1) |
| Contraceptive intent | Yes | 243 (96.8) |
| | No | 8 (3.2) |
| Method of contraception | Condom | 171 (68.1) |
| | Oral contraceptive pill | 17 (6.8) |
| | Others | 32 (12.7) |
| | >2 | 31 (12.4) |
| Character | Introvert | 87 (34.7) |
| | Extrovert | 88 (35.1) |
| | I do not know | 76 (30.2) |
| Number of friends (n=238) | 0 | 6 (2.5) |
| | 1~2 | 49 (20.6) |
| | 3~4 | 80 (33.6) |
| | ≥5 | 103 (43.3) |

다. 피임 자기효능감 평균은 44.20 ± 5.91 점(최고점 60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피임교육 경험, 피임 경험, 피임 의도, 성격,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 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t = -5.00, p < .001$), 피임교육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t = 4.68, p < .001$) 피임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t = 2.47, p = .014$) 피임 자기효능감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피임 의도가 있는 자가 없는 자에 비해($t = 2.75, p = .006$),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자가 내향적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보다($F = 8.14, p < .001$), 성문제 관련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 수가 '1명 이상' 있다는 자가 전혀 없다는 자보다($F = 26.56, p < .001$)보다 피임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Table 2).

4.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임 자기효능감은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과는 정적 상관관계($r = .39, p < .001$)가 있었고, 성 이중기준과는 부적 상관관계($r = -.39, p < .001$)가 있었다.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과 성 이중기준과는 낮은 부적 상관관계($r = -.14, p = .022$)가 있다고 나타났다(Table 3).

5.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80 미만으로 나타나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2.26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24~.94, 분산팽창지수(VIF)가 1.07~4.0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

하기 위한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고 특이 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나 특이 값도 없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성 이중기준($\beta = -.27, p < .001$)이었고,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beta = .25, p < .001$), 성별에서는 여자($\beta = .22, p < .001$), 피임교육 경험자($\beta = .14, p = .011$), 피임 경험자($\beta = .13, p = .031$)가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3%였다(Table 4).

남녀 대학생을 구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성 이중기준($\beta = -.33, p < .001$)이었고, 피임 경험자($\beta = .28, p = .001$), 피임교육 경험자($\beta = .25, p = .002$),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beta = .18, p = .035$)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3%였다. 여학생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beta = .32, p < .001$), 성 이중기준($\beta = -.21, p = .012$)과 피임의도($\beta = .16, p = .044$)가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3%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피임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성 이중기준,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별(여자), 피임교육 경험, 피임 경험이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3%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피임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므로 피임 자기효능감은 여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성관계 상황에서 피임을 사용할 것을 성 파트너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안전한 성행위 실천과 피임 실천에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22]. 여학생의 경우 성행동의 결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임 자기효능감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피임교육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임 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다고 한 연구[11,15,16]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고 학교의 성교육이 피임 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15]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한 중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도 피임 지식은 피임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Table 2. Differences of Contraceptive Self efficacy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

(N=251)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Contraceptive self-efficacy | | | |
|--|-----------------------------|-----------------------------|--------|--------|-------------|
| | | M±SD | t or F | p | Scheffé |
| Gender | Male | 3.54±0.45 | -5.00 | < .001 | |
| | Female | 3.84±0.48 | | | |
| Age (year) | 18~19 | 3.71±0.54 | 0.58 | .560 | |
| | 20~21 | 3.70±0.48 | | | |
| | ≥22 | 3.64±0.49 | | | |
| Department | Health & medical | 3.76±0.50 | 2.17 | .092 | |
| | Science & technology | 3.54±0.43 | | | |
| | Humanities & social studies | 3.73±0.52 | | | |
| | Arts & physical education | 3.72±0.47 | | | |
| Grade | Freshman | 3.70±0.51 | 0.29 | .835 | |
| | Sophomore | 3.71±0.53 | | | |
| | Junior | 3.65±0.46 | | | |
| | Senior | 3.74±0.38 | | | |
| Parents' opinion about dating | Conservative | 3.77±0.54 | 0.74 | .480 | |
| | Moderate | 3.67±0.48 | | | |
| | Open | 3.66±0.50 | | | |
| Economic status | High | 3.73±0.59 | 1.51 | .223 | |
| | Middle | 3.70±0.49 | | | |
| | Low | 3.52±0.43 | | | |
| Drinking with one year | Yes | 3.69±0.50 | 1.30 | .196 | |
| | No | 3.53±0.40 | | | |
| Experience of watching pornography | Yes | 3.69±0.50 | 0.20 | .845 | |
| | No | 3.67±0.46 | | | |
| Contraceptive education | Yes | 3.76±0.49 | 4.68 | < .001 | |
| | No | 3.42±0.42 | | | |
| Information sources of contraceptive education | School | 3.75±0.48 | 0.31 | .735 | |
| | Friends | 3.87±0.46 | | | |
| | Others | 3.75±0.52 | | | |
| Friend of opposite sex | Yes | 3.74±0.51 | 2.94 | .055 | |
| | No | 3.60±0.47 | | | |
| | In the past, not present | 3.76±0.49 | | | |
|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 Yes | 3.76±0.46 | 1.85 | .066 | |
| | No | 3.64±0.51 | | | |
| The first time of sexual intercourse (year) | 13~17 | 3.80±0.39 | 0.89 | .417 | |
| | 18~19 | 3.87±0.50 | | | |
| | ≥20 | 3.71±0.48 | | | |
| Contraceptive experience | Yes | 3.79±0.46 | 2.47 | .014 | |
| | No | 3.63±0.50 | | | |
| Contraceptive intent | Yes | 3.70±0.49 | 2.75 | .006 | |
| | No | 3.22±0.37 | | | |
| Method of contraception | Condom | 3.70±0.47 | 1.09 | .353 | |
| | Oral contraceptive pill | 3.64±0.50 | | | |
| | Other | 3.55±0.56 | | | |
| | >2 | 3.74±0.54 | | | |
| Character | Introvert ^a | 3.59±0.47 | 8.14 | < .001 | a, c < b |
| | Extrovert ^b | 3.85±0.52 | | | |
| | I do not know ^c | 3.60±0.44 | | | |
| Number of friends | 0 ^a | 3.07±0.15 | 26.56 | < .001 | a < b, c, d |
| | 1~2 ^b | 3.67±0.47 | | | |
| | 3~4 ^c | 3.71±0.54 | | | |
| | ≥5 ^d | 3.67±0.43 | | | |

Table 3. Relationships among Three Research Variables

(N=251)

| Variables |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 Sexual double standard | Contraceptive self-efficacy |
|--------------------------------|--------------------------------|------------------------|-----------------------------|
| | r (p) | r (p) | r (p) |
|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 - | | |
| Sexual double standard | -.14 (.022) | - | |
| Contraceptive self-efficacy | .39 (< .001) | -.39 (< .001) | - |

Table 4. The Influenced Factors on Contraceptive Self-efficacy

(N=251)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
| (Constant) | 32.75 | 3.28 | | 10.00 | < .001 |
| Sexual double standard | -0.27 | 0.05 | -.27 | -4.98 | < .001 |
|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 0.17 | 0.04 | .25 | 4.41 | < .001 |
| Gender [†] (female) | 2.59 | 0.69 | .22 | 3.73 | < .001 |
| Contraceptive education [†] (yes) | 2.00 | 0.78 | .14 | 2.58 | .011 |
| Contraceptive experience [†] (yes) | 1.55 | 0.71 | .13 | 2.17 | .031 |
| Contraceptive intent [†] (yes) | 2.50 | 1.80 | .07 | 1.39 | .165 |
| Character [†] (introvert) | 0.49 | 0.78 | .04 | 0.63 | .527 |
| Character [†] (extrovert) | 0.87 | 0.80 | .07 | 1.08 | .283 |
| Number of friends [†] (1~2) | 0.91 | 1.35 | .06 | 0.67 | .502 |
| Number of friends [†] (3~4) | 0.86 | 1.27 | .07 | 0.68 | .497 |
| Number of friends [†] (≥5) | 1.16 | 1.25 | .10 | 0.93 | .353 |

R²=.36, Adjusted R²=.33, F=12.12, p<.001

[†] Dummy variables;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5. The Influenced Factors on Contraceptive Self-efficacy by Sex

(N=251)

| Variables | Male (n=117) | | | | | Female (n=134) | | | | |
|---|---|------|------|-------|--------|---|------|------|-------|--------|
| | B | SE | β | t | p | B | SE | β | t | p |
| (Constant) | 38.89 | 4.29 | | 9.06 | < .001 | 30.26 | 4.90 | | 6.18 | < .001 |
| Sexual double standard | -0.28 | 0.07 | -.33 | -4.10 | < .001 | -0.21 | 0.08 | -.21 | -2.56 | .012 |
|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 0.11 | 0.05 | .18 | 2.14 | .035 | 0.21 | 0.06 | .32 | 3.66 | < .001 |
| Contraceptive education [†] (yes) | 2.90 | 0.92 | .25 | 3.15 | .002 | 0.99 | 1.30 | .06 | 0.76 | .447 |
| Contraceptive experience [†] (yes) | 2.97 | 0.88 | .28 | 3.36 | .001 | 0.21 | 1.16 | .02 | 0.18 | .858 |
| Contraceptive intent [†] (yes) | -1.36 | 2.33 | -.05 | -0.58 | .561 | 5.66 | 2.78 | .16 | 2.04 | .044 |
| Character [†] (introvert) | 1.18 | 1.01 | .11 | 1.17 | .244 | -0.21 | 1.22 | -.02 | -0.17 | .863 |
| Character [†] (extrovert) | 0.54 | 1.16 | .05 | 0.46 | .644 | 1.23 | 1.13 | .10 | 1.09 | .279 |
| Number of friends [†] (1~2) | 0.39 | 1.82 | .02 | 0.21 | .831 | 0.74 | 2.21 | .06 | 0.34 | .738 |
| Number of friends [†] (3~4) | 0.20 | 1.57 | .02 | 0.13 | .899 | 1.01 | 2.17 | .08 | 0.47 | .643 |
| Number of friends [†] (≥5) | 1.02 | 1.52 | .10 | 0.67 | .506 | 0.59 | 2.15 | .05 | 0.27 | .784 |
| | R ² =.39, Adjusted R ² =.33, F=6.83, p<.001 | | | | | R ² =.29, Adjusted R ² =.23, F=4.96, p<.001 | | | | |

[†] Dummy variables;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coefficients.

타나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피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피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에 근거한 성태도 형성과정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임 유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 경험에 있는 대상자 전체가 피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응답한 연구도 있어[25] 피임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임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39.0%가 성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이 대상자의 첫 성 경험 시기는 만 13~17세 때가 22.2%, 만 18~19세가 42.0%, 20세 이후에 62.2%가 첫 성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40%가 성 경험이 있고 그 중 첫 경험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42.5%, 대학 1~2학년 때가 39.36%로 보고한 결과[25]보다는 낮으며, 연구대상자 선정 지역에 따른 결과의 오차를 감안한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피임교육 시기에 대한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38.1%가 성 경험이 있고 첫 성 경험 시기가 평균 19.3세로 보고한 연구[4]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40% 정도가 성 경험이 있으며, 이중 40% 정도가 대학교 1, 2학년 즉 18~19세에 첫 성 경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피임교육 및 성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피임을 한다면 피임방법으로 68.1%가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콘돔의 경우 남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피임법으로 남성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여대생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으로 성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는데[26],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12]. 따라서 콘돔은 쉽고 간편한 피임법이므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피임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내 보건진료소 또는 화장실에 콘돔을 비치하여 피임 자기효능감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성 문제와 관련하여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 수는 1명 이상인 자가 없는 자에 비해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 및 대학원령 층에서 자기효능감과 성행동은 동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5]를 뒷받침한 결과이다. 사회망은 개인을 중심으로 상호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연결망으로 친구,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등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 사회 망 구성원들은 개인의 건강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5].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친구가 가장 주요한 사회

망이므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친목도모를 돕는 다양한 동아리와 수업에서 팀 과제를 부여하는 활동들을 모색하여 친구와 만남의 기회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은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피임 자기효능감과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미미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며, 대학생은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많이 대화할 경우 긍정적인 성 태도를 확립한다고 보고한 연구[6]에 비추어보면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지만 추후 관련성을 증명하는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성 이중기준과는 부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성 이중기준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관한 허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17]. 또한 성 이중기준이 전통적인 여성성으로 내면화된 여성의 경우 사회의 기대나 규범에 따라 원하지 않는 성 행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27]. 이는 성 이중기준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임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여자다움의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남대생들은 여자를 도구화하고 평등한 성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7] 양성평등에 대한 사고가 고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으로 성 이중기준을 지우게 한다면 피임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은 성 이중기준,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별(여자), 피임 교육 경험, 피임 경험이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3%였다. 특히 성 이중기준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었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은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실제 피임실천이 어렵고, 개방적 성 역할을 가지고 있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12] 성 이중기준과의 관계성을 설명한 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1]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만을 구분하여 피임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성 이중기준이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성 이중기준을 수용할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어서 성 행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여자를 평등한 성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성적도구로 취급하는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8] 이러한 부분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사용 주도성, 성적 자기주장, 성관계 거부, 자

올적 성행동을 내포하고 있으므로[10], 피임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의 성에 대한 전통적 규범과 태도와 관련된 성 이증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홍보가 확산되어야 한다.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또한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만을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이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성과 피임에 대한 답변이 가까운 친구나 동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므로[12] 여학생은 성, 피임과 관련해서 친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세대인 부모들은 자녀와 성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면서 자녀들을 감독하고 성행동을 통제하려고만 하므로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19]. 본 연구에서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의 경우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의 경우 성 태도와 성 행동은 부모보다는 친구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5]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 증강을 위해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열린 대학문화의 구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제안한다.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남녀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대로 남녀 대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모색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 이증기준이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성 이증기준,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별(여자), 피임교육 경험, 피임 경험이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남학생의 경우 성 이증기준이, 여학생의 경우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차별적 성 이증기준과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이 대학생들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추후 남녀 대학생에게 성 이증기준을 낮추기 위한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및 피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

언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영향요인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ORCID

Kim, Junghyo <https://orcid.org/0000-0003-2051-6883>
 Park, Mikyung <https://orcid.org/0000-0001-9364-5534>
 Cho, Euna <https://orcid.org/0000-0003-0647-7179>

REFERENCES

- Kim YH, Moon ST, Kang HS.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3):166-175. <https://doi.org/10.4069/kjwhn.2013.19.3.166>
- Choi MS, Ha NS.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4;10(4):318-330.
- Hur MH, Ahn HY, Kwak EA, Kim KM, Park JY, Lee JR.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7;37(3):267-275. <https://doi.org/10.4040%2Fjkan.2007.37.3.267>
- Shin KR, Park HJ, Bae KE, Cha C.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Adult Nursing*. 2010;22(6):624-633.
- Kang HS. An explanatory model of condom us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1. 130 p.
- Kim Y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cation of sex with friends: the communication, the knowledge and the attitude relationship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07. 51 p.
- Reiss IL. The social context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New York: Helt, Rinehart & Winston; 1967. 256 p.
- Kim Y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s. *Forum for Youth Culture*. 2011;27:8-37.
- Min HY, Kim KH. Parent's suppor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sexual valu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5;26(6):59-71.
- Kim KH, Cho EA.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scale: Focused on wome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6;22(3):151-161. <https://doi.org/10.4069/kjwhn.2016.22.3.151>
- Lee IS, Cho JY. Comparative study on the contraceptive knowledge,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career tract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 Health. 2008;21(2):75-88.
12. Hwang SW, Chung CW.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ntraception behavior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2):159-169.
<https://doi.org/10.4040/jkan.2014.44.2.159>
 13. Levinson RA. Contraceptive self efficacy: A perspective on teenage girl's contraceptive behavior.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986;22(3):347-369.
<https://doi.org/10.1080/00224498609551314>
 14. Alvarez C, Villarruel AM, Zhou Y, Gallegos E. Predictors of condom use among Mexican adolescents.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2010;24(3):187-196.
 15. Jung HY.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on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2016;6(1):17-25.
 16. Cho JY, Lee IS. Sexual behavior, knowledge, self-efficacy, and perceived risk of contraception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0;12(6):3179-3192.
 17. Choo BS. A qualitative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Journal of Future Oriental Youth Society*. 2014;11(4):47-75.
 18. Warren C. Parent, children and communication: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Parent-child communication about sex).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r; 1995. p. 173-201.
 19. Ha SH, Lee JY, Chung HJ. The effect of parenting processes on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006;24(1):271-286.
 20. Caron SL, Davis CM, Halteman WA, Stickle M. Predictors of condom-related behaviors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ex Research*. 1993;30(3):252-259.
 21. Nam YJ. Sexual meaning type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arried in their 30s and 40s[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136 p.
 22. Kim MJ.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plaining contraception behaviors of married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1;7(2):141-156.
 23.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2):175-191.
 24. Ip WY, Sin LL, Chan DS. Contraceptive self-efficacy and contraceptive knowledge of Hong Kong Chinese women with unplanned pregnanc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9;18(17):2416-2425. <https://doi.org/10.1111/j.1365-2702.2009.02829>.
 25. Jaung AH, Jung YJ, Kim MY. Affecting factors sexu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555-563.
<https://doi.org/10.5762/KAIS.2015.16.1.555>
 26. Cho GY, Kim YH.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11):6710-6718.
<https://doi.org/10.5762/KAIS.2014.15.11.6710>
 27. Impett EA, Peplau LA.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2002;40(1):87-100.
<https://doi.org/10.1080/00224490309552169>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Sexual double standard is shown to affect sexual behavior. The lower the sexual double standard, the more sexually equal sex. The more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the more positive the sexual attitude. The higher the knowledge of contraceptive, the higher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 What this paper add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double standard and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in relation to contraceptive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is limited. Results of this paper revealed that sexual double standard and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could affect contraceptive self-efficacy.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n order to improve contraceptive self-efficacy, a program is needed to eliminate sexual double standard and improve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